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담아야

도교육청,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내달 6일까지 의견 받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담아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생 인권과 교

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해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

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을 명시(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검사 및 물품 분리·보관이 가능하며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제13조 사생활의 자유)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및

인권담당관으로 용어 현행화로 인한 변경(제6조, 제11조, 제27조) 등을 일부 개정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12월 6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문가 협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내년 1월 중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오후 전북학생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의회 제안 7건 내년 본예산에 반영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참정권 교육 등 서거석 교육감, 전북학생의원에 예산안 설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7일 오후 전북학생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내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과 전북학생의회가 임시회(3회)와 정기회(2회)를 통해 제안한 7개 안건에 대한 예산 편성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앞서 전북학생의회는 △고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선거 나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참정권 교육 △학생 흡연을 저하를 위한 금연 지원 정책 △학생자치 연합 워크숍 운영 △교내 야외조명(가로등)설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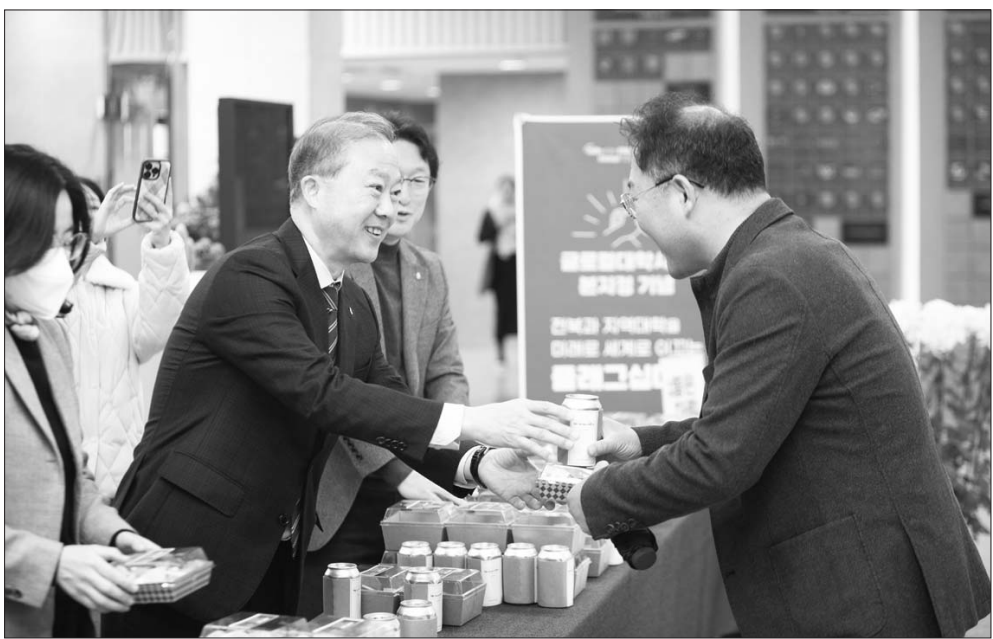
등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청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북학생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사업에 대해 전년도 27억6,000만원에서 39억원 증액된 총 66억6,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최현호 의장은 "전북학생의회 1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교육감으로부터 직접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학생들이 전북교육 주체로서 참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1년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학생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북학생을 대표하는 학생의회의 의견을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지난 17일 아침 구성원들과 간식을 나누며 글로벌30 사업 선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글로벌30 선정, 구성원 열정·범지역적 협력 있어 가능"

양오봉 전북대 총장, 교직원들에 간식 나눔·노고 격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17일 아침 구성원들과 간식을 나누며 글로벌30 사업 선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오전 8시 30분

부터 본부 로비에서 양오봉 총장이 직접 출근하는 교직원 한 명 한 명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양오봉 총장은 "역사적인 글로벌30

사업 선정은 우리 구성원 여러 분들의 열정과 범지역적 협력이 한 데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라며 "축복과도 같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실행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지를 함께 다지는 행복한 아침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올 한해 성과 공유

11개 의제 실행... 도 기후환경정책과, 전주시 건축과·관광산업과 등과 정책 연계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하 전북지플)은 지난 17일 오후 2시 하림미션홀에서 '2023년도 전북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 17일 오후 2시 하림미션홀에서 '2023년도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지역문제를 공모해 접수된 총 237개의 제안 중 11건의 최종 실행 의제를 선정했다. 이후 선정된 의제들의 계획을 고도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행,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영상 전북도 청년정책과장, 양춘제 공동정책위원장(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홍성덕 전주대 대외부총장, 그리고 전북지플의 실행 의제에 참여한 126개 민·관·공 협업 기관과 의제 실행팀이 참여했다.

성과공유회는 1~2부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도지사 표창 및 감사패 전달, 2023년도 전북지플 사업 추

진 성과 발표 등이 진행되고, 이어 2부에는 11개의 실행 의제팀과 함께 토론회가 펼쳐졌다.

한편, 올해 전북지플은 총 11개의 의제를 실행하며 도민 참여 8,621명, 의제 실행 협력 기관 191개(누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6건, 자원 연계 현황 1억1,950만원, 현물 346개, 전북도 기후환경정책과, 전주시 건축과, 전주시 관광산업과, 남원시 교통과와 정책 연계 등의 성과를 남겼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중 심양대, 중의협작 프로그램 공동 신청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중국 심양대학교(총장 자오옌즈)와 업무협약을 체결, 내년 3월 중국 교육부가 추진하는 중의협작 프로그램에 공동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7일 KH바버 서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남천현 총

장과 자오옌즈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공학부·정보보안학과·체육학과 교육협력 프로그램 추진 △공통교육 모델 개발 △과제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다.

/장은성 기자

축산폐수서 발생 암모니아 제거 연구 전북대 장지는 석사과정생 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서 포스터발표 부문 '우수'

전북대학교 장지는 석사과정생(환경에너지융합학과, 지도교수 진성욱)이 최근 열린 '2023 추계 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에서 포스터발표 부문 학생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지난 7~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학회에서는 지하수, 지구화학, 지질학, 해양지질학, 퇴적학 등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대학원생, 교수 및 신진연구자들이 참여해 구두발표와 포스터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에 포스터발표 부문에서 수상한 장지는 석사과정생은 '배치실험을 통한 지하수 내 암모니아 제거 기작 평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수질 및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축산폐수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토양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를 이용해 제거하고, 그 과정의 평가를 위해 배치실험을 수행한 것이다.

/장은성 기자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현황 공유

도교육청, 워크숍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9개 디지털 선도학교 리더십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18일 1박 2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천안 복지여자고등학교와 대구 매동초등학교의 운영사례 나눔을 통해 타 시도의 디지털 선도학교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AI 코스웨어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또한 '오기영 미래교육연구소' 오기영 소장의 특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도내 9개 디지털 선도학교 외에 AI 기반 코스웨어를 적용한 저년독본운영학교의 사례를 나누고,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방과후 시간에서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의 가능성을 살펴봤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HK+ 지역인문학센터 인문강좌 '공생체 인문학2'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가 인문강좌 '공생체 인문학2'를 지난 1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주에 걸쳐 진행했다.

'공생체 인문학2'는 공생체 개념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인식 공동체를 구축하는 인문강좌로,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화, 도시의 인문학적 자원과 담론을 통해 전북도민의 인문학 소양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송수진 경북대 인문학술원 교수의 1강: 조선 유학의 공부를 시작으로 △최진영 영화감독의 2강: 삶의 부당함에 대해-영화 '태어날길 잘했어'를 중심으로, △전미란 전북사회서비스원 팀장의 3강: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감수성, 조성환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의 4강: 공생체 인문학의 가치와 의미, △김지훈 문화통신사 협동조합 대표의 5강: 나는 왜 아침마다 쓰레기를 줍는가? ESG 예술실천 사례, △오충렬 전주시평생학습관 평생학습사의 6강: 집단 지성, 왜 우리는 함께 배워야 하는가 등이 이어졌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17일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판 증정식을 가졌다.

무주 문화관광형 창업 사업장 현판 증정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17일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판 증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장들에게 지원과 격려의 의미를 전하고,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로, 무주군 산업경제과에서 현판을 수여했다.

이날 열린 현판 증정식은 2023년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사후관리자들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최현희 팀장은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자들은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창업 아이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다"며 "이번 현판 증정식은 창업자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조덕현 단장은 "창업자들에게 발전된 지원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창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